

# 제4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

2022. 12. 2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2월 27일 14:00 ~ 14:35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의결 제392~400호)

김 소 영 부위원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의결 제390~394호, 제396~400호)

유 재 훈 위 원

(의결 제390~395호, 제397~400호)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390호 『중소기업은행 2023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391호 『중소기업은행 2023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의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두 가지 질문이 있음. 하나는 통상임금예비비가 5,201억 원이 들어가 있는 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의 다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계류 중인지?
- (보고자) 2심까지 진행됐음. 1심에서 노조가 이겼고 2심에서는 사측이 이겼는데 3심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 (위원) 그리고 ESG 금융 쪽을 늘린다고 했는데 전체 부분 중에 얼마 정도를 어떻게 늘려가는 것인지?

- (보고자) ESG 부분에 대한 자금을 얼마 늘리겠다는 취지보다는 ESG쪽 경영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임.
- (위원)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ESG 분야는 저희가 정책금융 중심으로 민간은행과도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2호 『한국산업은행 2023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393호 『한국산업은행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산업은행의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세 가지 질문이 있음. 주택임차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임차보증금인지?
- (보고자) 그러함. 한국산업은행 사택에 대한 보증금임.

- (위원) 우리가 한국산업은행 운영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산업은행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온렌딩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음. 온렌딩은 계속 강조되거나 유지되는 형태이고 자기들 자금 늘리는 쪽을 많이 확대하고 있음. 더군다나 내년은 금융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온렌딩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전혀 없는지?
- (보고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온렌딩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원) 일정 부분인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온렌딩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운데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지?
- (보고자) 말씀하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온렌딩 제도 부분을 비교해서 검토해보겠음.
- (위원) ESG 관련해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음. 온렌딩 부분은 장단점을 따져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주시기 바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4호 『신용보증기금 2023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보증기금의 2023년도 업무계획(안)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5호 『금융감독원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함

※ 2023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권대영 상임위원임. 금융감독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예·결산심의 소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2023년 금융감독원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 예산안 심의의 기본 원칙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원칙적으로 준수하되,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특수성 감안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것임을 보고 드림. 주요예산 심의 결과임. 먼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를 감축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보수인상(1.2%, 1급 이상 동결)을 결정하였음.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정원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차질

없이 실천하여, 2023년이 명실상부한 금융범죄 척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필수 증원 수요 25명을 증원하였음. 다만, 증가된 금융감독원 정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정·현원차 해소와 2023년에 증원된 인원의 현원 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부가하였음. 이러한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 금융감독원 예산안은 2022년 3973.3억 원 대비 0.1%가 감액되었고, 법정 지급 경비인 한국회계기준원 지원금 제외시 0.6%가 감액된 총 3,969억 원으로 마련되었음.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4,269억 원에서 300억 원, 즉 7% 감액한 것임. 아무쪼록 「금융감독원 2023 회계연도 예산승인안」을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6호 『예금보험공사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3 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7호 『서민금융진흥원 2023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398호 『서민금융진흥원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진흥원의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질문이 몇 가지 있음. 지금 햇살론 중에서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그리고 미소금융 부분이 작년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햇살론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 7월에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임. 그런데 보증 규모가 90%이다보니 당초에 금융회사에서 출연금을 받아 계획했었던 것보다 좀 실적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음. 햇살론카드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에 출시를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급을 했음. 당초 계획이 1,000억 원에서 추정실적이 300억 원, 2만 명한테 공급하였음. 실제로 카드라는 것은 갚으면 또 사용할 수 있어 그 규모로 본다면 이미 1,000억 원 수준을 넘은 부분도 감안하여 봐주시길 바람
- (위원) 제 말은, 이런 신용을 창출하는 햇살론 카드 같은 것은 도움이 많이 되고 신용을 확보해 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실적이 낮다고 해서 원래 1,000억 원대였는데 500억 원으로 줄었음. 그런 것이 지금 단순히 실적이 낮다고 해서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측면이 하나 있음. 그런 차원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같은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음. 이것은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그런데 미소금융은 실제로 전반적으로 잘 안 됨. 오히려 이런 부분을 줄이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것을 끌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99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400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주택연금 관련해서 가입 확대가 추세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사실 2가지 모두를 봐야 됨.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될 텐데 물론 잘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됨.

○ (보고자) 말씀하신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대상을 확대를 하면서 커버리지를 넓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가입되는 것을 12억 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에 추가로 15억 원까지도 높이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여

야 쟁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국회만 열리면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됨. 그리고 고령화라든가 주택가격 변동, 금리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4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35분 폐회)